



1만 여 명 '통 큰 채용' 스타트

학점 낮아도 OK… “직무중심 맞춤형 전략 세워야”

지난해 하반기보다 신입 공채 증가
직무평가 중심으로 채용 기조 강화
어학 필수… 계열사별·직무별 상이
삼성전자 전체 규모 80% 이상 차지

‘이공계 텃밭’ 삼성그룹의 2019 상반기 3급 대졸 신입사원 공채의 서류접수가 시작됐다.

삼성전자·삼성전기·삼성SDS·삼성SDI·삼성디스플레이 등 전자계열사를 시작으로 삼성카드·삼성증권·삼성화재·삼성생명·삼성자산운용 등 금융계열사는 12일,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에피스·삼성엔지니어링·삼성물산·제일기획·에스원 등 기타 계열사는 13일부터 입사지원서를 받고 19일 일괄 마감한다. 내달 직무적성검사를 거쳐 최종 합격자는 7~8월 입사한다.

모집직무는 계열사별 상이하다. 대졸 신입사원과 동시에 인턴 모집도 이뤄진다. 삼성엔지니어링은 기술직(설계)·안전 관리직·경영지원 직군에서, 삼성물산 리조트부문에서는 조경시공·코스관리·경영

삼성그룹 계열사별 2019 상반기 3급 신입·인턴사원 서류접수 일정

서류접수 시작	계열사	서류접수 마감	추후 일정
3/11(월)~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 SDS, 삼성SDI 삼성디스플레이		
3/12(화)~	삼성카드, 삼성증권 삼성화재, 삼성생명 삼성자산운용	3/19(화) 오후 5시	직무적성검사 4월 입사예정 7~8월
3/13(수)~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에피스 삼성엔지니어링 삼성물산, 제일기획, 에스원		

상기 일정은 기업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자료=인크루트

력을 증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열사별로 통상 삼성전자가 전체 채용 규모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올 상반기 공채에 앞서 삼성그룹은 지난달 말부터 캠퍼스리크루팅을 시작했다. 전체 계열사 채용설명회는 약 340여 회 전후로 파악되는 가운데, 삼성전자 채용설명회는 약 160여 회로 절반 정도에 이른다. 삼성전자 중에서는 반도체(DS) 부문이 80% 가량이다. 오는 14일 건국대에서 삼성전자 DS부문 채용상담회와 설명회가 열린다.

서류마감 이후 채용직무적합성평가를 거쳐 내달 모든 계열사가 일제히 삼성직무적성검사(GSAT)를 치른다. 작년 하반기에는 서울·부산·대구·대전·광주 등 5개 도시와 미국 뉴욕·로스앤젤레스 두 곳에서 시험을 치렀다.

인크루트 서미영 대표는 “삼성그룹은 대표적인 이공계의 텃밭이지만, 직무평가 강화와 학점 불문을 기회로 삼아 철저히 직무 중심의 맞춤형 구직전략을 세운다면 승산이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채용 간소화… 직무 에세이 심사 강화

BGF리테일 상반기 신입사원 공채

온라인 채용설명회 진행, 24일 마감
AI 검증 프로그램 도입해 직무 분석

편의점 CU(씨유)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이 2019년 상반기 신입사원을 공개채용한다. 모집 대상은 4년제 대학교 졸업 및 2019년 8월 졸업 예정자, 전역(예정) 장교로 11일부터 24일(오후 1시 마감)까지 BGF리테일 홈페이지를 통해 서류 접수를 받는다.

이번 상반기 채용 규모는 00명으로 ▲영업관리직군 ▲전략기획직군 ▲재경지원직군 ▲상품운영직군 ▲전문직군 총 5개 직군에서 모집하며 물류, 정보처리, 산업안전 등 전문 자격 보유 시 우대한다.

전형 절차는 서류전형 ▶ 인성검사 ▶ 1차면접 ▶ 2차면접 ▶ 현장실습 ▶ 최종 입사 순으로 진행된다.

BGF리테일은 회사에 대한 관심과 직무 역량을 중심으로 우수한 인재들을 선발하기 위해 올해도 채용 과정을 간소화하는 한편, AI(인공지능) 검증 프로그램을 도입해 직무 에세이 심사를 강화하고 지원자의 직무적합도 분석을 보다 꼼꼼하게 할 예정이다.

또한, BGF리테일은 기존 오프라인 채



용설명회가 기진 시간적, 공간적 제약에서 벗어나 지원자들이 보다 쉽고 편하게 채용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동영상 컨텐츠를 활용한 온라인 채용설명회를 펼친다.

BGF리테일 채용 담당자가 직접 출연해 각 전형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함께 채용 프로세스 소개 / 현직자 직무 인터뷰 / 단골질문 QnA 등 기존 현장 채용설명회에서 담지 못한 다양한 정보들을 동영상으로 전달한다.

관련 영상은 취업포털 및 유튜브, 각종 SNS 등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BGF 장영식 HR팀장은 “지원자들의 눈높이에 맞춰 다양한 컨텐츠와 채널을 통해 채용 정보를 제공하는 등 회사가 먼저 다가가는 열린 채용 문화를 만들고자 한다”며 “현업 중심의 인재 채용과 체계적인 육성을 통해 회사와 직원이 함께 성장하는 조직문화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지난달 26일 오후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대구광역시 현장채용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알림판을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소서·면접 등 채용시장 점령한 ‘인공지능’

취준생 “AI, 또 하나의 산… 잠재력 판단 의문”

공정성·객관성 위해 AI 반영 잇따라
‘인공지능 면접 합격기술’ 책도 출판
실용성·악용 우려 등 의견 엇갈려
취준생 “준비항목만 늘어” 시큰둥

“학습에 기반하는 존재가 지원자의 잠재력까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준비할 계획이니 더 신경 쓰게 만드네요.”

상반기 기업 공개채용 시즌이 왔다. 특히 롯데는 채용 공정성·객관성 제고와 능력 중심 채용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인공지능(AI)을 서류전형에 활용한다. AI를 적용해 지원자의 자기소개서를 분석해 기업 인재상에 부합하고 해당 직무에 적합한 지원자를 걸러낸다는 계획이다. 또 자소서 표절 여부도 짚어낸다.

기업의 ‘AI 감독 시스템’ 도입은 점차 늘어난다. SK C&C와 KB국민은행, 종근당, 한미약품, 기아자동차 등 사기업에 이어 공기업도 AI를 반영하고 있다.

특히 BGF리테일의 경우 직무 에세이 심사에 AI를 설치했고 서민금융진흥원과 경동나비엔, 샘표식품 등은 면접에 AI를 적용해 필기시험 대상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그러나 취업준비생 사이에서는 기업의 공채 AI 도입에 시큰둥한 반응이다.

취업준비생 오재현(24)씨는 “채용합격 자가 회사에 적응하지 못해 빨리 퇴사하게 될 경우 기업 입장에선 손해이기 때문에 오래 있을 사람 뿐으로 (기업이) AI를 도입하는 것 같다”면서도 “학습에 기반하는 AI가 자소서나 면접을 보면 잠재력 까지 어떻게 알겠느냐”고 하소연했다. AI가 표절 여부 등을 판별할 수 있어도 지원자의 진정성까지 알 수 있겠냐는 제언이다.

오씨는 “인간 면접관의 경우 주관이 개입하거나 반영될 수밖에 없지만, 지원자의 평가 등을 보고 채용할 수 있지 않느냐”며 “AI 감독이 얼마나 좋은 인재를 채용할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기업 인사·채용 관계자 사이에서도 의

견은 분분하다.

채용에 AI를 도입하지 않은 한 기업 인사부서 관계자는 “인간 면접관이 나설 경우 주관이 들어가거나, 거짓 자소서를 걸내기가 어려워 공정한 채용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도 “(AI 감독이) 더 공정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 관계자는 “AI라는 점을 적용한 기업 별 자소서 양성 AI가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인간이 만든 기술은 인간이 언제나 악용 가능하기 때문에 AI 도입이 실용적일지는 의문”이라고 제언했다.

실제 시장에는 AI 면접 합격기술 내용을 담은 책자가 출판돼 눈길을 끈다. AI 면접을 시작하기 전 지원자가 점검해야 할 점이나 유형별 개념설명, 문제풀이 등 세밀한 부분까지 다뤘다.

한편 취준생의 기업 입사지원 수는 평균 15곳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습에 기반하는 AI가 채용에도 개입하면서 취준생 고충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석대성 기자 bigstar@

예탁원, 체험형 청년인턴 30명 모집

신입 공개채용시 가산점 부여

한국예탁결제원은 오는 21일까지 청년 미취업자들에게 직장체험 기회를 부여하고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 체험형 청년인턴’ 30명을 모집한다.

채용인원은 일반공통 22명, 장애인 4명, 보훈4명 등이다.

예탁원 측은 “사회적 배려대상인 장애인 및 보훈대상자를 별도 채용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취업의욕을 제고시키고 이번 청년인턴 경험이 향후 취업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예탁원은 채용 청년인턴을 대상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및 면접 관련 교육 등을 실시하고, 추후 예탁원 신입직원 공개채용 시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모집 요강 및 입사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예탁원 채용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손엄지 기자 sonumji301@